

## 아무리 절망적이더라도 포기하지 말 것 (끈기)

- 경영정보관리 학습법 -

경영학부 17학번 서○○

### ○ 과목 소개 및 에세이 작성 동기

학습 노하우에 대해 쓰려고 마음먹었을 때, 어떻게 하면 후배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 (여기에서의 동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끈기’이다) 지금까지 주위의 대학 동기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학점이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아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그러한 결과가 반복되다 보면, ‘해도 안 되는구나’라는 자책감이 생기고, 결국 도중에 포기해버리는 참혹한 결과로 이어진다. 나는 이 반복되는 악순환에서 자책감이 들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끔 용기를 주고 싶다.

이번 학기가 3학년 2학기인 지금, 나는 조기 졸업을 목표로 했기에 막 학기를 앞두고 있고, 지금까지 나의 누적 전공 학점은 4.5이다. 하지만 나는 남들과 비교했을 때, 특별하게 똑똑하지도, 남들보다 뛰어나게 열심히 하지도 않았다. 단지 조금 다른 공부 방법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에세이를 쓰게 되었다.

내가 소개하고 싶은 학습법의 과목은 ‘경영정보관리(MIS)- 김○○ 교수님’이다. 사실 회계를 2년 이상, 재무를 1년 이상 배운 경영학과 학생으로서, 친구들이 회계나 재무를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알기에 이 부분에 대해 학습법을 쓸까 고민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관련 과목인 MIS 과목을 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정보관리는 경영학부 3학년 전공필수 과목이기에, 모든 학부생이 필수로 들어야 한다. 둘째, 경영정보관리에는 경영정보시스템의 내용이 일부 포함되는데, “경영정보시스템은 자료를 저장하고, 정보를 생성함으로써 기업 내에서 필요한 지식을 생성하고 축적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통합적인 컴퓨터 정보 시스템이다.”<sup>1)</sup> 이 말인즉슨 문과인 경영학과 학생들에게는 생소한 IT, 시스템 용어가 자주 등장하므로, 더 낯설고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다. 셋째, 한 학기에 총 4번의 리포트 과제, 1번의 팀플(10분가량의 피피티, 리포트 포함), 중간/기말고사, 이 외의 보너스 점수 과제로 이루어진 이 수업이 대학 생활 3년간 나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벅찬 수업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오랜 고민 끝에 이 과목을 선정하게 되었고, 나는 2019년 1학기에 MIS(영어 수업)를 수강하였다. 나에게 가장 벅차기도 했지만, 가장 보람차고 유익하기도 했던 이 과목을 도대체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었는지 그 노하우를 지금부터 소개하겠다.

1)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과학 “경영정보시스템, 형설 출판사

## ○ 학습법 세부 내용

사람마다 모두 자신에게 알맞은 공부 방법이 있다. 그래서 내가 소개하는 방법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누군가는 이 방법이 비효율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다. 다만, “나의 공부 방법이 어떤 스타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전공 공부를 급히 시작해야 해.” 라는 친구들에게는 이 방법을 참고용으로 추천하고 싶다.

MIS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1) 모든 과목에 적용 가능한 경영학과 전공 공부 방법과 (2) 내가 특별히 MIS를 공부하기 위해 사용했던 학습법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되, 전자는 간단히 서술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 (1) 모든 과목에 적용 가능한 경영학과 전공 공부 방법

- 단권화: 혹자는 전공 책과 정리 노트, 컴퓨터 필기까지 따로 나누어 수업과 책의 내용을 정리하기도 하는데, 나는 주로 단권화를 추구하는 편이었다. 단권화란, 책 한 권에 모든 개념 필기와 교수님의 설명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정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같은 개념을 같은 페이지에서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 전공 책에 충실하자: 전공 책이 무겁고 비싸다는 이유로 책을 사지 않고 피피티나 각종 자료를 보며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나는 그래도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 곧 과목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너무 비싸고, 책에 필기나 체크를 하면 나중에 후배들에게 물려주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공 책이 남아질 때까지 들고 다니며 읽다 보면 과목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장점이 있다.

- 시험 기간(2주)에 최선을 다하자: 사실 평소에 연습과 복습을 모두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학교 수업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개인 사정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하므로, 내가 권장하는 공부 기간은 딱 시험 시작 전 2주이다. 딱 2주 동안만 친구를 덜 만나고, 핸드폰 사용시간을 조금 줄이며 공부에 집중한다면, 누구나 원하는 점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 (2) 특별히 MIS를 공부하기 위해 사용했던 학습법

MIS 공부 단계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보면, ①개념 이해→ ②사례 찾기→ ③리포트 쓰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간, 기말고사는 리포트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방식이므로 평소에 리포트에 많은 공을 들여서 점수를 잘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매체와 수단이 사람마다 다양할 텐데, 나는 주로 ‘책’ 과 논문을 활용하였다. 평소에 책을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유독 MIS 공부를 하며 종이책을 정말 많이 찾아서 읽었다. 한 학기 동안 읽은 책이 거의 30권에 달할 정도로 어느 도서관이든 무작정 찾아가서 관련 서적을 읽었다. 서점, 학교 도서관, 동네 도서관, 타 대학교 도서관 등을 다녔고, ‘경영정보관리’ 또는 ‘경영정보시스템’ 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다. 특정 주제에 관한 내용을 찾아야 할 때에는 인터넷 논문 검색 사이트에 키워드와 관련된 연구논문을 읽기도 했다. 논문 사이트는 학교 중앙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한 권의 책만 읽는 건 권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저자마다 정의해놓은 서술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 권의 책을 읽으며 사례도 접하고,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내가 주로 자주 보았던 책을 몇 권만 추천하자면, ‘Kenneth C. Laudon, Jane P. Laudon, 「경영정보시스템 14판」, 시그마프레스, 2017’, ‘David M Kroenke, Randall J. Boyle, 「사례로 배우는 경영정보시스템 7판」, 시그마프레스, 2018’ 이 책들에 개념 정리와 사례가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보고서를 다 쓴 후에는 ‘copykiller’ 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표절 검사를 한다면, 표절로 인한 감점을 예방할 수 있다. 보통 10% 이상이면 감점이 들어가니, 최대한 5% 이하로 맞추는 것이 안전하다.

표절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각주를 꼼꼼히 붙여야 하는데, 워드 작성 시 [참조- 각주 삽입] 메뉴를 활용하면 된다. 각주를 쓸 때는 네이버에 “각주 표기법” 을 검색해보고, 참고하여 양식에 맞추어 쓰면 된다.

템플 같은 경우에는 어느 템플과 같이 팀원과의 소통이 원활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다만 특정 주제를 정해서 10분 발표와 리포트를 제출한다는 것만 알려지기에,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막막할 수 있다. 우리 조 같은 경우에는 ① 특정 주제의 개념 → ② 여러 가지 활용 사례 → ③ 향후 기술 전망,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개요를 짰다.

### ○ 학습방법을 통한 능력향상 정도 또는 기타 영향

MIS 관련 서적을 읽고 공부하며 배운 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기업에서 의사결정이나 효과적인 경영을 위해 사용하는 TPS, ERP 등 정보 시스템 관련 지식과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웹 3.0, 5G와 같은 기초적인 IT 용어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사실 공대생이거나 이런 IT 분야를 따로 공부하지 않는 이상, 배우기 어려운 IT 지식을 접하는 기회는 흔하지 않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정보화 시대이고, 지식은 세상을 보는 안목을 넓혀준다.

현재 나는 회사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3개월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실무적으로 API, SaaS와 같은 용어가 자주 쓰인다는 것을 직접 몸소 느끼고 있다. 당시에는 책으로만 공부하던 용어가 실제로 실무에서 쓰이는 걸 볼 때, 열심히 공부했던 보람이 마음 가득 차오르는 것 같다. 학생 때는 나랑 전혀 상관이 없어 보였던 분야라도, 나중에는 피와 살이 되어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회사에 다니며 깊이 공감하게 되었다.

따라서 당장은 흥미가 없고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면 나중에는 분명 그 노력이 큰 자산이 되어 본인에게 되돌아올 거라고 말해주고 싶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던 경영학과 전공 학습법은 모든 과목에 다 적용이 가능하다. 단권화를 해서 공부하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개념을 다시 공부할 때에도 여러 자료를 찾아보지 않아도 되어 수월하게 복습이 가능하다.

## ○ 추천 이유 및 소감 등

앞서 말했듯이, 이 과목은 전공필수 과목이기에 모든 학생들이 선호에 상관없이 필수로 들어야 한다. 나 또한 처음에는 생소한 개념이라 거부감이 들기도 했지만, 이왕 듣는 김에 ‘잘하고 싶다’ 라는 오기가 생겨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다. 결론적으로는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고, 그 선택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음을 느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야를 다 열심히 공부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공부를 시작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다.

나 또한 공부를 시작한 초반에는 불행히도 리포트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다. 매일매일 도서관에서 관련 전공 서적을 10권 이상 읽으며 밤을 새워서 공부했는데, 각주를 신경 쓰지 못한 탓에 너무나 허무하게 표절 점수가 큰 폭으로 깎아버렸다. 첫 리포트 점수가 평균 이하 점수가 나와버려서 모든 의욕이 꺾이고 공허한 마음에, 교수님께 양해 메일을 보내기도 했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끝내 ‘포기 해야겠다’ 라고 다짐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기에는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노력이 너무 아까웠고, 스스로 열심히 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억울하고 비통했다. ‘나는 평균 이상의 노력을 쏟아부었는데, 왜 이 점수를 받아야 하나’ 싶었고, 그 노력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전보다 더 자주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다른 과목보다 2배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 그렇게 끝까지 열심히 하니 결국 좋은 점수가 보상으로 되돌아왔고,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사실 지금 와서 돌아해보면 점수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이 과목을 통해 뭘 배우고, 무엇을 얻었나?’ 하는 이 부분이 훨씬 더 나에게 중요한 결실이었다. 만약, 점수는 잘 나왔는데,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얻은 것이 없다면, 부끄러워 마땅한 일이다. 점수에 상관없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 지식을 ‘내 것’ 으로 만드는 경험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학생으로서 학교에 다닐 때는 몰랐던 이러한 본질을 직장을 다니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은, 만약 친구가 노력만큼 점수가 따라주지 않아 속상해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하며, 포기하지 말고 지금처럼 꾸준히 하면 결실을 맺을 거라고 전하고 싶다. 숫자가 내 노력을 정의 내릴 수 없듯이, 그 결실은 꼭 점수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어쩌면 점수라는 숫자보다 더 값지고 의미 있으리라고 믿는다.